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1년2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논문

# 영어 학습 수준에 따른 한국어 화자의 /v/와 /b/ 발음 비교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 주 연

# 영어 학습 수준에 따른 한국어 화자의 /v/와 /b/ 발음 비교

A comparative study of /v/ and /b/ pronunciation  
by Korean adult learners of English:  
Focusing on proficiency level

2021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 주 연

# 영어 학습 수준에 따른 한국어 화자의 /v/와 /b/ 발음 비교

지도교수 강 희 조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 주 연

이 주 연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정희정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채은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강희조



2020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 Abstract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목적 .....	1
제 2 장 이론적 배경 .....	3
제 1 절 선행 연구 .....	3
제 2 절 언어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 .....	4
1. 나이 .....	5
2. 목표 언어의 노출 .....	5
3. 목표 언어에 대한 태도와 동기 .....	6
제 3 절 영어와 한국어의 자음 체계 비교 .....	7
1. 한국어의 자음 체계 .....	8
2. 영어의 자음 체계 .....	10
3. /b/ 와 /v/ 의 조음 .....	12
제 3 장 실험 과정 .....	15
제 1 절 실험 대상자 선정 .....	15
제 2 절 실험 단어 선정 .....	17

제 3 절 발화 실험 도구 및 방법 .....	17
제 4 절 발음 자료의 평가 .....	18
제 4 장 실험 결과 .....	20
제 1 절 총 발화 시간 비교 .....	20
제 2 절 그룹별로 비교 분석 .....	22
1. 그룹별 청취 결과 .....	22
2. 그룹별 음향 분석 결과 .....	23
제 3 절 자음에 따른 청취 결과 .....	24
1. 고급 영어 그룹의 자음에 따른 청취 결과 .....	24
2. 고급 영어 그룹의 자음에 따른 음향 분석 결과 .....	25
3. 초급 영어 그룹의 자음에 따른 청취 결과 .....	26
4. 초급 영어 그룹의 자음에 따른 음향 분석 결과 .....	27
제 4 절 /b/ 와 /v/의 단어 내 위치에 따른 비교 .....	28
1. 고급 영어 그룹 /b/와 /v/의 위치에 따른 청취 결과 .....	28
2. 고급 영어 그룹 /b/와 /v/의 위치에 따른 음향 분석 결과 ...	29
3. 초급 영어 그룹 /b/와 /v/의 위치에 따른 청취 결과 .....	30
4. 초급 영어 그룹 /b/와 /v/의 위치에 따른 음향 분석 결과 ...	31
제 5 절 Logistic regression 을 이용한 통계학적 해석 ...	32

제 5 장 결론 .....	35
참고문헌 .....	38
부록 1. 설문지	
부록 2. 실험 자료	



## 표 목 차

표 1 한국어의 자음 체계 비교 .....	8
표 2 영어의 자음 음소 .....	10
표 3 /b/와 /v/의 조음 방법 비교 .....	13
표 4 피험자 비교 .....	16
표 5 총 발화 시간 비교 .....	20
표 6 그룹별 청취 결과 .....	22
표 7 그룹별 음향 분석 결과 .....	23
표 8 고급 영어 그룹의 자음에 따른 청취 결과 .....	24
표 9 고급 영어 그룹의 자음에 따른 음향 분석 결과 .....	25
표 10 초급 영어 그룹의 자음에 따른 청취 결과 .....	26
표 11 초급 영어 그룹의 자음에 따른 음향 분석 결과 .....	27
표 12 고급 영어 그룹의 /b/와 /v/ 위치에 따른 청취 결과 ...	28
표 13 고급 영어 그룹의 /b/와 /v/ 위치에 따른 음향 분석 결과 ...	29
표 14 초급 영어 그룹의 /b/와 /v/ 위치에 따른 청취 결과 ...	30
표 15 초급 영어 그룹의 /b/와 /v/ 위치에 따른 음향 분석 결과 ...	31
표 16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한 통계학적 해석 .....	32

## 그림 목 차

그림 1	‘best’를 발화하였을 때 .....	18
그림 2	‘cover’를 발화하였을 때 .....	19
그림 3	그룹별 청취 결과 .....	22
그림 4	그룹별 음향 분석 결과 .....	23
그림 5	고급 영어 그룹의 자음에 따른 청취 결과 .....	24
그림 6	고급 영어 그룹의 자음에 따른 음향 분석 결과 .....	25
그림 7	초급 영어 그룹의 자음에 따른 청취 결과 .....	26
그림 8	초급 영어 그룹의 자음에 따른 음향 분석 결과 .....	27
그림 9	고급 영어 그룹의 /b/와 /v/위치에 따른 청취 결과 ...	28
그림 10	고급 영어 그룹의 /b/와 /v/위치에 따른 음향 분석 결과 ...	29
그림 11	초급 영어 그룹의 /b/와 /v/위치에 따른 청취 결과 ...	30
그림 12	초급 영어 그룹의 /b/와 /v/위치에 따른 음향 분석 결과 ...	31

# ABSTRACT

## Comparative study of /v/ and /b/ pronunciation by Korean adult learners of English : Focusing on proficiency level

Lee Joo yeon

Advisor : Prof. Hijo Kang Ph. D.

Major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In 2000s, English has become one of the common language in the world to use internet. So most of the students in Korea start studying English very early age with many ways. But there are still a lot of arguments about what the proper age is for English learning. Though there is no consensus about the proper age, many researchers agree that L2 learners can have fluent pronunciation when they are exposed to L2 in their early liv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nunciation of /b/ and /v/ sound that are pronounced by different age groups who are their 20's and 30's. Participants in one group (20's) started to learn English before school and they have high proficiency of English. The other group had participants who started English at elementary school or middle school. They have low proficiency of English. The two groups read the sentences including target words containing /b/ or /v/ and the recorded sounds were analyzed auditorily and acousticall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r proficiency group pronounced /v/ more accurately both auditorily and acoustically. In addition, the group pronounced the words correctly no matter where /v/ and /b/ were located in the words. In contrast, the lower group pronounced /v/ incorrectly and the rate of correctness was the lowest when /v/ was in the middle of words. This suggests that the lower group was affected by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Korean, which is their mother tongue. The results overall supports that there is certain period like CPH(Critical Period Hypothesis). But this should be restricted to the pronunciation of L2.

# 1. 서론

## 1.1 연구목적

인간의 삶은 소리를 통해 시작되며 이러한 소리는 사람 간의 의사전달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을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언어의 발화를 통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언어의 발화 과정은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듣고 보고 배우고 각각의 조음 과정의 연습을 통해 생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언어의 궁극적인 목표라 함은 해당 언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세계는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정보화 시대에 도달하였으며, 세계가 인터넷을 통해 하나로 이어지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서 모국어 하나만을 학습하는 단일 언어 시대는 지나가고 다중언어 시대에 도달하면서, 현재 학생들에게 영어 공부는 필수 사항이 되었다. 모든 초등학교 이상 학생들이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원과 과외 등으로 영어를 매일 접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1995년에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1997년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게 되었고, 2000년대부터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3~4학년은 주 1단위, 5~6학년은 주 2단위씩 수업을 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 영어과 수업에서는 말하기와 같은 언어의 실용주의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영어의 실용적인 의사소통이 중요시되면서 교육 현장 내에서 발음에 대한 교육 역시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한국인 영어 선생님이 발음을 지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교육과정 편

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직접 지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 영어 교실에서도 영어 말하기에서 의사소통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 정도로만 가르치고 있으며(1992년 6차 교육과정 이후) 말하기 평가에서도 대부분 발음을 따로 평가하지 않는 총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 교실에서 발음의 교육은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 구사를 위한 교육 보다는, 말하는데 있어 지장 받지 않는 정도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Brown(1994)에 의하면 사춘기 이전에 외국어를 배우면 발음이 좋아지고 외국어 발음 학습은 일찍 교육 받을수록 좋으며 발음의 정확도는 외국어 학습을 시작하는 나이에 반비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발음은 많은 연습이 요구되고 끊임없는 반복 학습만이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어 교육을 강조할 때 문장 구조와 어휘교육 및 문법학습이 중요하다면 발음 또한 조기 교육단계부터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 학습 시작 시기와 연관을 지어 피험자들의 영어 학습 수준에 따른 영향을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발음적인 측면에 강조하여 본 실험과 논문 작성에 진행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인 성인 대상으로 제2언어(L2)인 영어의 음성 체계 중에서 흔히 실수를 범하는 /b/ 와 /v/ 발음을 비교하여 영어 학습 수준에 따른 성인들의 발음 비교하고자 하며, 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통하여 영어 수준이 발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관관계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선행연구

이번 장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수준에 따른 발음 비교를 하기 위해 영어 교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논하고자 한다. 외국어 교육의 시작 최적의 연령에 대하여 아직도 많은 논의가 있으며, 많은 학자가 이 주제에 관해 다루었고, 여러 가지 가설을 내세웠다. 어린이가 성인보다는 외국어를 쉽게 배운다는 것은 일찍이 Erasmus, Montaigne, Lock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관찰되었다(Stern, 1983). 이러한 이론은 1960년대에 다시 주목을 받게 되어 시기가 빠를수록 성인보다 외국어를 빠르고 쉽게 배운다는 ‘적기 연령설(Optimal Age theory)’이나 ‘결정적 시기설(Critical period theory)’로 제기되었다.

Chomsky(1965)는 언어 습득 장치 LAD(Language Acquisition Device)가 있다고 말했으며, 이는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 특정 시기가 있다고 설명한 이론이다. Chomsky에 의하면 어린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어, 어린아이의 다른 신체 기능이 자라듯이 언어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학습된다고 한다. 언어 습득 장치에서 일정한 시기란 1.5~6이며 이 시기에 언어 습득이 가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13~14세가 되면 쇠퇴한다고 가정하였다. 결정적 시기 가설의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점이라면 바로 발음일 것이다. 발음 학습의 경우 결정적 시기가 지나면 원어민과 같은 발음을 학습하기가 비교적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Asher & Garcia(1969)의 연구에 의하면 생후 만 1세~6세까지는 68%가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을 하게 되고, 7세~12세에는 41%, 13세~19세는 7%만이 외국어 발음 시 원어민과 거의 가까운 발음을 한다고 보고 한 것을 보면 노출 시기가 언어 학습에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Smith & Wilson(1981)에 의하면 어린이가 모국어를 배우는 신속성, 용이성, 규칙성 등은 사춘기가 지나면 급격히 줄어든다고 한다. 중학생이 되면 이미 12~13세로 언어학적으로는 이미 성인으로 속한다고 본다. 또한 구강 구조나 근육 활동이 모국어를 발음하기에 적합하도록 훈련되어 있으며, 이때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 모국어의 간섭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Ellis(1986)는 성인의 경우 자신의 모국어 발음이나 억양을 유지하려는 반면에 어린이는 원어민의 발음을 적극적으로 모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은 자신의 또래 집단에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므로 어린이가 제2언어에서 발음의 유창성이 더 높다고 하였다.

언어 노출 시기와 습득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학자들 모두 동의하는 부분은 발음에 있어서는 노출 시기와 습득 능력이 반비례 한다고 주장한다. 즉, 언어 노출을 조기에 시작 할수록 노출되는 언어에 대해 문화적으로 동화되기 쉬우며, 이로 인해 해당 외국어의 발음을 자신의 모국어 발음에 영향 받지 않고 원어민 발음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향을 나타내려한다.

## 2.2 언어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

우리나라는 모국어 학습이 선행된 후 제2언어를 학습하는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환경이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제2언어의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이론에서 본다면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언어 학습에 매우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아무래도 EFL 환경에서는 모국어를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시간과 환경 자체가 현저하게 차이 난다. 또한, 발음상으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제때 오류 교정이 들어가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언어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겠으나,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 2.1.1 나이

학습자의 개인적인 차이가 모국어 학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지만 제2언어 습득의 경우에는 학습자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특성에 따라 성공 여부에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의 개인적인 특성(Personal characteristic)으로는 지능(Intelligence) 및 적성(Aptitude), 성격(Personality), 동기(Motivation)와 태도(Attitude), 학습 스타일(Learning style), 그리고 나이(Age)라는 요소가 있다.

이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제2언어 학습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나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의 나이라는 변수를 다른 연구조사 중에서 결정시기 가설(CPH : Critical Period Hypothesis)이 가장 나이와 언어 습득에 관한 연구 중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한 가설이라 할 수 있다. CPH의 주장에 따르면 원어민과 같은 혹은 원어민에 거의 가까운 발음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만 5~6세를 결정적 시기라고 보고 있다.

Fries(1945)는 새로운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새로운 언어의 문장 구조나 단어가 아니라 그 언어의 발음 체계라고 하였으며, 발음이 어떻게 조직되는지 숙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발음의 특징을 구별하고 발화를 이해하며, 그와 같이 발음하도록 하는 것이 언어를 습득에 있어 가장 고려되어야 할 점이라고 하였다.

### 2.2.2 목표 언어의 노출

학습자들은 입력을 통하여 언어 및 발음을 습득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말하기 이전에 이해 가능한 입력을 제공해야 한다(Asher, 1977; Krashen, 1982). 따라서 영어에 대한 노출(Exposure) 정도가 성공적인 영어 발음 습득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EFL 환경에서는 영어에 노출될 기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발음지도 역시 원어민에 의해서가 아닌 한국인 교사에게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제때 발음 교정이 이루어지긴 힘들다. 김주영, 신승훈(2014)의 연구에서는 40~50대와 20대의 영어 발화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40~50대의 인지 정답률이 20대의 그것에 비해서 낮게 나왔다. 이는 20대가 영어 학습 및 경험이 풍부하여 모국어의 전이에 비해 더 큰 학습 효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목표 언어에 대한 언어 경험이 발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 2.2.3 목표 언어에 대한 태도와 동기

학습자들의 목표 언어에 대한 태도와 학습 동기는 성공적인 발음 습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Pennington & Richard, 1986). Guiora(1972)는 억양이나 발음은 한 개인이 심리적으로 목표어의 새로운 의사소통 체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제공하기 때문에 언어 자아(language ego)가 발음 습득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학습자가 목표 언어의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Guiora, 외, 1972).

Brown(1994)은 어린이의 자아는 역동적이고, 사춘기가 될 때까지 성장하면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에 대한 적응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지만, 사춘기에는 동시에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변화로 인해 언어 자아가 방어적인 메커니즘이 생겨나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에 대해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현 영어교육 상황에서 성인이 되면, 실용주의에 입각한 회화 중심이 아닌 시험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게 된다. 이러한 영어의 목적으로는 발음 교정이란 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선미와 김신혜(2014)의 연구에서 대

학생들은 영어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전공 수업 때문에 영어를 시간 내어 공부하기가 어렵고 영어를 ‘근접할 수 없는 과목’이며 ‘노력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과목’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영어의 도구적인 측면으로 인해 새로운 언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란 쉽지 않으며, 발음의 교정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2.3 영어와 한국어의 자음 체계 차이 비교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발화할 때 오류를 범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영어와 한국어 자음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모국어인 한국어와 영어 간 발음의 차이로 인해 L2로서의 영어는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해 조음 과정에 간섭을 받게 된다. 따라서 모국어와 영어 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Brown(1994)은 제2언어 학습의 초기 단계에는 모국어로부터의 언어 간 전이가 특히 많이 일어난다고 하였으며, 이는 제2언어 체계에 익숙해지기 전인 초기 단계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 학습에 끌어들이 수 있는 언어는 모국어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음은 한국어의 영어와 국어의 자음 체계를 살펴보면서 두 언어 간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 2.3.1 한국어의 자음 체계

조음위치 \ 조음방법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폐쇄음	평음	ㅂ	ㄷ	
경음	ㅃ		ㄸ		ㄲ	
격음	ㅍ		ㅌ		ㅋ	
마찰음	평음		ㅅ			ㅎ
	경음		ㅆ			
파찰음	평음			ㅈ		
	경음			ㅊ		
	격음			ㅉ		
유음			ㄹ			
비음		ㅁ	ㄴ		ㅇ(η)	

표 1. 한국어의 자음 체계 비교

한국어의 각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서 표[1]과 같이 분류된다. 목청을 통과한 공기의 흐름이 막히거나 통로가 좁혀져서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입게 되면 다양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를 ‘자음(子音)’이라고 한다. 자음은 홀로 발음할 수 없고 모음에 닿아서 나는 소리이므로 닿소리라고도 부른다. 한국어의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으로 모두 19개이다.<sup>1)</sup> 이 때 장애가 일어나는 자리를 조음 위치라고 하고, 장애를 일으키는 방법을 조음 방법, 공기를 내뿜는 정도를 기의 세기라고 한다. 자음은 이와 같이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그리고 기의 세

1) 활음으로 불리는 /j/와 /w/는 한국어에서는 모음의 일부로 분류되기도 하므로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기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뉜다.

조음 위치에 따라서는 두 입술에서 나는 소리를 ‘양순음(兩脣音)’, 혀끝이 윗 잇몸에 닿아서 나는 ‘치조음(齒槽音)’, 혀바닥과 셴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경구개음(硬口蓋音)’, 혀의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연구개음(軟口蓋音)’, 목청 사이에서 나는 ‘후음(喉音)’이 있다.

조음 방법에 따라서는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서 내는 ‘파열음(破裂音)’,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히고 공기를 그 좁은 틈 사이로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마찰음(摩擦音)’, 그리고 앞의 두 가지 방법을 섞어서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를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켜 내는 ‘파찰음(破擦音)’이 있다. 또한 여린 입천장과 목젓을 내려 콧길을 열어 놓은 뒤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비음(鼻音)’,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윗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 옆으로 흘러 내보내면서 내는 ‘유음(流音)’이 있다. 한국어에서는 비음과 유음이 유성자음이다.

앞에서 살펴본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에 따른 자음의 분류는 다른 언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어 자음은 기(소리)의 세기에 따라 ‘평음(平音), 경음(硬音), 격음(激音)’으로도 나뉘는데, 이는 다른 외국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한국어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이다.

### 2.3.2 영어의 자음 체계

Place Manner	Bilabial	Labio- dental	dental	alveolar	alveolar - palatal	velar	glottal
Stops	p, b			t, d		k, g	
Fricative		f, v	θ, ð	s, z	ʃ, ʒ		h
Affricative					tʃ, dʒ		
Nasal	m			n		ŋ	
Liquid				l, r			
Glides	w				j		

표 2. 영어의 자음 음소

영어의 자음은 ‘p, t, k, b, d, g, ʃ, dʒ, m, n, ŋ, f, θ, s, ʃ, v, ð, z, ʒ, l, r, w, j, h’의 기본항목을 가진다. 영어의 자음을 조음 방법에 따라 분석하면 폐쇄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설측음, 유음 등으로 분류한다. 폐쇄음으로는 양순음인 ‘p, b’, 치경음인 ‘t, d’, 연구개음인 ‘k, g’가 있고, 마찰음으로는 순치음인 ‘f, v’가 있고, 파찰음으로는 후 치경음인 ‘tʃ, dʒ’가 비음으로는 한국어와 동일하게 각각 양순, 치경, 연구개음인 ‘m, n, ŋ’이 있다. 설측음은 치경음인 ‘l’, 유음은 폐로부터 나온 공기가 발음하는 과정에서 크게 방해받지 않고 구강의 주임부로 방출되며 발음되는 음으로 치경음 ‘r’, 양순음과 연구개음에 속하는 ‘w’, 연구개음인 ‘j’가 있다.

다음은 성대의 상태에 따른 분류이다. 발음하는 과정에서 성대가 울려 발음되면 유성음, 성대를 울려 발음하지 않으면 무성음이다. 영어의 자음들은 폐쇄

음, 마찰음, 파찰음의 경우, 파찰음의 ‘h’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성음과 무성음의 짝을 이룬다. 폐쇄음의 경우 ‘p, t, k’가 무성음이며, ‘b, d, g’가 유성음이다. 마찰음은 ‘f, θ, s, ʃ, h’가 무성음이며, ‘v, ð, z, ʒ’가 유성음이다. 파찰음의 경우 ‘tʃ’가 무성음, ‘dʒ’가 유성음이다. 비음과 설측음, 유음은 모두 유성음이다.

위에 나열한 영어의 마찰음 중에서 / f, v, θ, ð, z / 6개는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음소이며, 이에 따라 한국인들이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 6개 음소를 한국어에 존재하는 자음 중에서 비슷한 음으로 대체하여 발화하게 된다. 따라서 이 마찰음 음소들은 발화하거나 듣게 되었을 때 이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조음 방법에 따른 자음 대립쌍을 이용한 연구결과에서 보면 /f-p/, /v-b/, /θ-d/, /z/ 중에서 /v-b/, /d-θ/에 관한 결과에서 다른 마찰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험자들이 음소의 차이를 인지하는데 어려워한다고 밝혔으며 (임영신, 2019), 김지은(2012)은 발음 숙련도에 영향을 주는 발음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한국인 학생들에게 영어 발음을 지도할 때 어떤 발음을 우선 가르치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하는 연구에서 유성음의 발음을 잘하는 학생은 전체적인 발음 숙련도가 있다고 해석하였다. 즉, 한국인들의 영어 발음을 지도할 때 무성음 발음보다는 유성음 발음지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영어 학습 수준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유성음에 관한 발음의 연구결과로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된다는 결과를 내렸다.

이렇게 두 언어의 자음 체계를 비교하였을 때, 성대의 상태에 따른 분류와 마찰음의 조음위치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유성음의 발화 정도로 성인들의 학습 수준을 판별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마찰음의 조음위치 차이에 주목하여 한국어에 없는 순치음 /v/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 2.3.3. /b/ 와 /v/ 의 조음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마찰음 발음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박희정 (2014)에 따르면 영어 마찰음으로 구성된 혀 꼬임 말을 빠르게 말하는 상황에서 한국인 학습자들이 발화한 자료를 Pratt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 원어민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한국인 학습자들의 발음을 영어 원어민의 발음에 기준으로 한 오류분석을 한 결과 한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자음에서 오류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최아름(2008)의 연구에 따르면 마찰음의 오류율이 /ð/ 는 83.70%, /θ/ 는 55%, /ʒ/ 는 45.7%, /v/ 는 31.67%, /f/ 는 26.67%, /z/ 는 10%, /ʃ/ 는 9.17%, /s/ 는 0%라고 실험 결과 밝혔다. 특히 한국인 화자들이 마찰음을 다른 음으로 대신하여 발음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마찰음 오류 유형에 따른 지도 방안을 제시하자고 제안하였으며,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수정하고 실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미진(2010)은 영어 수준에 따른 발음 비교를 하기 위해 한국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음 비교한 후 수준에 맞는 영어 교수법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중’ 이상 수준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른 음소들에 비해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v/ 나 /ð/ 의 발화에 오류 비율이 높았으므로 이에 관한 발음 연습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하’ 수준 학생들의 경우에는 영어 발음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음소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발음지도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 하면서, ‘하’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영어 발화에 대한 동기 부여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마찰음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b/와 /v/만을 대상 범위로 정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영어 수준과 연관 지어 진행하였다. /b/와 /v/의 조음 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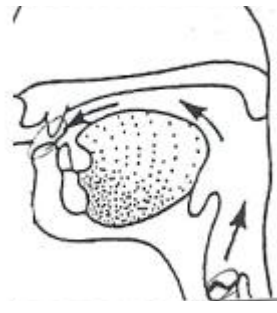
		
발음	/b/	/v/
조음위치	양 입술	윗니를 아랫입술에 살짝 댄다
성대 진동	성대가 진동 한다	성대가 진동 한다
조음 방식	공기를 파열 시킨다	공기를 마찰 시킨다
분절음 명칭	유성 양순 폐쇄음 (voiced bilabial stop)	유성 순치 마찰음 (voiced labiodental fricative)

표 3. /b/와 /v/의 조음 방법 비교

- /b/: 먼저 /b/는 양 입술을 다문 상태에서 입안의 공기를 가득 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양 입술을 통해 공기를 밖으로 터트리면서 소리를 낸다. 이때 성대를 진동시키게 된다. 이를 유성 양순 폐쇄음(voiced bilabial stop)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한국어의 ‘ㅂ’과 같은 소리라고 할 수 있다.

- /v/: /v/는 윗니를 아랫입술에 살짝 대고 성대를 진동시키는 상태에서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며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윗니를 아랫입술에 대고 마찰을 일으킨다 하여 유성 순치 마찰음(voiced labio dental fricative)이라고 한다. 마찰음 /v/는 한국어 자음에 없는 음으로써 한국 영어 학습자들에게는 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최정민(2001)은 /f, v, θ, ð, z/ 는 한국어에 없는 자소로서 한국인이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한다는 것을 실험으로 입증하였다. 음향학적 스펙트럼에서 미국인 화자에 비해 선명하지 못하거나 마찰 띠가 보이지 않는 때도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 한국인이 /f, v/ 와 같은 유성음을 무성음화 하여 발음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인 화자가 ‘vase’와 ‘base’ 같은 최소 대립쌍의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마찰음에 나타나야 할 마찰 띠가 ‘base’와 같은 단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한국인들이 각각의 음들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처럼 영어의 발화에 잘못된 음소별 발음 인지와 영어와 한국어의 서로 다른 발화 체계로 인해 모국어의 간섭과 마찰음을 구별하지 못해 발생 발음의 오류가 발생 된다. 또한, 한국 영어학습자들에게 있어 영어 발음이 어려운 경우 대부분 한국어 자음에 속하지 않아서 발음하기가 어렵거나 혹은 청취 식별 자체가 난해하여 발생한다.

다음 장에서는 대다수의 한국인 성인에게서 학습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영어 마찰음 중에서 /v/ 와 이의 대립쌍인 /b/ 의 발음 비교를 위해 발화 실험에 관한 과정과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 3. 실험 과정

#### 3.1 실험 대상자 선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연구는 영어 학습 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b/와 /v/의 발음 양상을 비교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실험 대상자 선정은 영어를 전공한 20대 초중반의 여성 3명과 영어를 전공하지 않고 30대 중반의 광주와 전라남도 출신 여성 3명으로 정하였다.

영어의 학습 수준에 따른 그룹으로 나누기 위해 고급 영어그룹과 초급 영어그룹으로 나누었으며, 고급 영어 그룹은 세 명 모두 유치원을 다니면서 영어를 접했다고 답했다. 또한, 7차 교육과정에 따라서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 학교 과정으로 배웠다. 고급 영어 그룹의 피험자들은 영어 교육학과 재학 중이거나 졸업자로서 영어를 전공하고 현재 4시간 이상 영어를 꾸준히 공부하고 있는 피험자로 정했다. 세 명의 피험자 모두 해외 거주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초급 영어 그룹은 30대 피험자들로서 7차 교육과정 이전의 교육 과정에서 영어를 배웠기에,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거나 중학교에 진학하여 영어를 처음 접하였다고 답했다. 현재 집에서 육아 중인 주부들로서 영어를 사용할 일이 없으며 영어 비전공자들로 세 명을 선정하였다.

첫 번째 피험자(피험자1)는 24세 광주 출신 여성이며, 학창 시절에 뉴질랜드에 10년 동안 거주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현재 토익 점수는 960점으로 영어 교육학을 전공하여 하루에 4~6시간 정도 영어를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두 번째 피험자(피험자2)는 23세 광주 출신 여성으로 대학교 재학 중에 2개월 정도 미국에 체류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유치원에서 처음 영어를 접하였다고 대답하였으며, 영어 교육학 전공이라 하루에 4~6시간 이상 독학으로 영어를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세 번째 피험자(피험자3)는 25세 광주 출신 여성으로 대학교 재학 중에 필리핀 캐나다를 총 8개월 정도 체류하였다고 대답하였다. 현재 하루에 6시간 이상 독학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네 번째 피험자(피험자4)는 36세 광주 출신 여성으로, 미술전공자며 현재에는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영어 외에는 영어를 접하고 있지 않으며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 집에서 과외로 영어를 처음 접하였다고 답하였다. 공인영어 점수는 토익으로 400점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다섯 번째 피험자(피험자5)는 39세 광주 출신의 여성으로, 중학교 때 처음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였다고 답하였다. 유아 교육을 전공하였으며 현재에는 아이들의 영어 노출을 위해 생활 영어 사용이 2시간 미만이며 집에서 아이들에게 영어 동요를 들려주는 것 외에는 영어를 접할 기회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여섯 번째 피험자(피험자6)는 34세 전라남도 출신 여성으로, 중학교 때 처음으로 영어를 접하였다고 답하였다. 경찰 행정 전공자이며 현재 2시간미만 정도 아이들과 함께 생활영어 cd를 노출 시켜주면서 함께 공부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성인들은 모두 영어 텍스트는 무리 없이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선정하였다. 다음 표는 이번 피험자들을 보기 쉽게 비교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그룹	고급 영어			초급 영어		
	피험자1	피험자2	피험자3	피험자4	피험자5	피험자6
나이	24세	23세	25세	36세	39세	34세
영어 노출 시기	유치원(취학 전 노출)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전공	영어교육			미술	유아교육	경찰행정
해외 거주 경험	뉴질랜드 10년	미국 2개월	캐나다 8개월	없음		

표 4. 피험자 비교

### 3.2 실험 단어 선정

실험 자료에 들어가는 단어 선정은 /b/ 와 /v/ 가 초반에 들어가는 단어들과 중반에 그리고 단어의 어미(語尾)에 들어가는 단어 총 80개로 정하였다. 단어는 일반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단어들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이 오류를 범하기 쉬울 것으로 예상 되는 자음 대립쌍이 문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문장에서 화자가 읽을 때 목표 단어에 집중되지 않도록 문장 속의 다른 단어에 밀줄을 그어 발음할 때 그 단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단어가 자음과 모음 앞에 위치하는 단어들을 선정하여 자음과 모음 앞에 /b/ 와 /v/ 가 위치하였을 때 나타나는 발음의 차이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 3.3 발화 실험 도구 및 방법

단어가 들어간 문장들을 피험자들에게는 녹음기를 이용해서 문장을 녹음하도록 하고, 5분 정도 휴식 후 다시 녹음을 진행하였다. 녹음은 외부의 소음이나 잡음 등이 적은 실내에서 진행하고, 녹음 시에는 외부 마이크를 활용하였다. 마이크와 실험 참여자와의 거리는 20cm 정도는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발화시 목소리 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처음에 발화할 때는 천천히 발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 발화할 때에는 영어 문장에 조금 익숙해졌을 것이라 여겨, 약간 속도를 내서 발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영어 노출이 빠른 그룹은 녹음을 하는데 대략 3~5분가량 소요되었으며, 영어 노출이 늦은 그룹은 녹음하는데 10분에서 12분정도 소요되었다. 녹음을 마친 후에는 프랏(praa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장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 문장에 들어가는 단어들을 하나씩 분절하여 구간별로 나누었다. 처음에는 직접 듣고 들었을 때 /b/ 와 /v/ 를 정확하게 발음한 경우 Y, 틀린 경우 N으로 표시해 두었다.

Praat 프로그램으로 분절된 단어를 음향 그래프를 보고 측정하여 /b/ 로 발음하면 s(stop)라 표시하고 /v/ 로 발음하면 f(fricative)라고 표시한 후 정리하였다. 그리고 /b/ 와 /v/ 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녹음 결과가 불분명하거나 분석이 어려운 자료는 데이터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취합된 결과들을 엑셀(Excel) 파일로 각각의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였고, 카이 스퀘어와 Logistic regression을 통계 분석 자료로 검정하였다.

### 3.4 발음 자료의 평가

한 개 혹은 한 개 이상의 음절로 구성된 단어의 상대적인 발음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음성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스펙트로그램과 파형을 통해 /b/ 발음과 /v/ 발음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그림1]은 분석 대상으로 사용된 명사 중 하나인 “best”를 발화하였을 때 파형이다. S(Stop)로 표시한 곳이 “best” 중에서 /b/ 를 발화한 구간이다. /b/ 를 발화하였을 경우에는 약간의 진동은 있지만, 비주기적인 파형이 나타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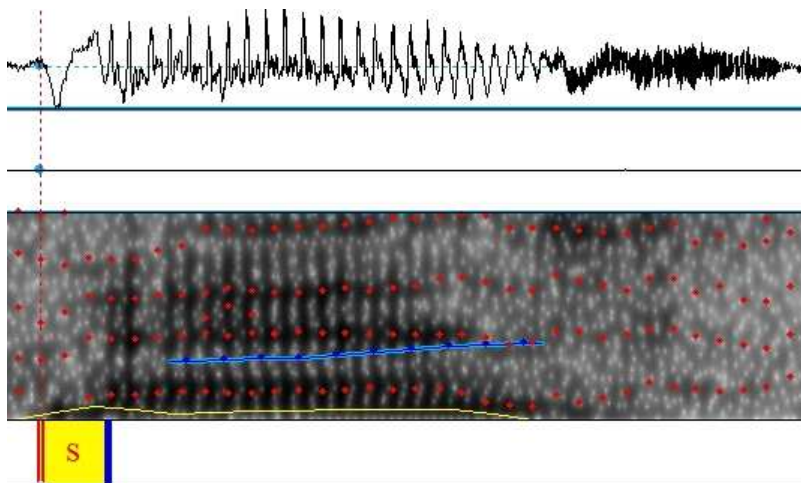


그림 1. “best”를 발화하였을 때

[그림2]의 경우에는 /v/가 들어간 단어 중 하나의 예로 “cover” 를 발화하였을 때를 나타내는 파형으로서, F(Fricative)로 표시된 부분이 /v/를 발화한 부분이다. /v/를 발화하였을 때는 앞서 [그림1]에 비하여 파형이나 스펙트로그램이 뚜렷하게 계속 이어진 것처럼 나타난다. 즉, 주파수가 높은 지역에 잡음 같은 모양으로 일정한 형태의 파형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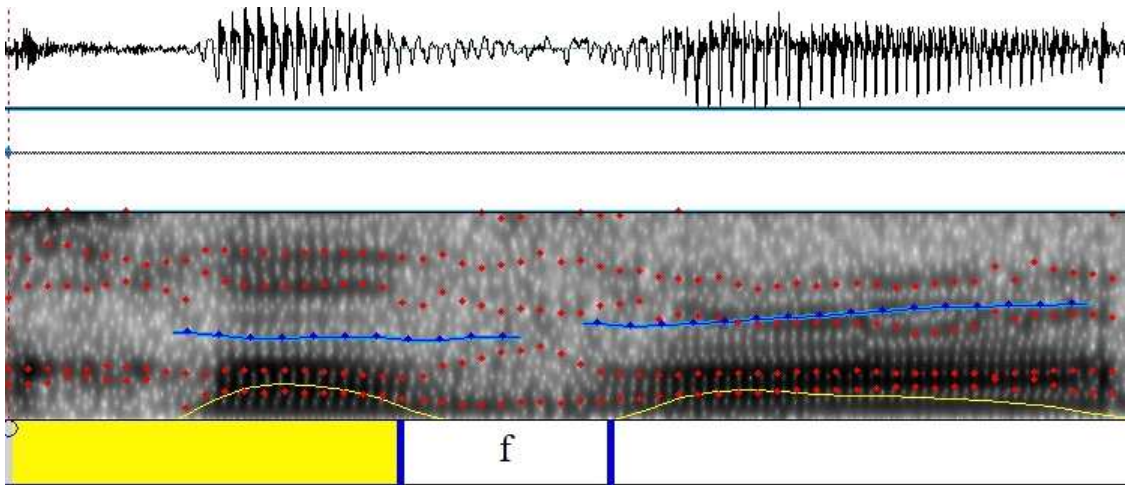


그림 2. “Cover”를 발화 하였을 때

## 4. 실험 결과

각각 취합한 데이터를 Excel로 작업 후에,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피험자들의 영어 수준에 따라 구분하기 위하여 고급 영어 그룹(Y) 및 초급 영어 그룹(O)으로 명시하여 작성하였다.

### 4.1 총 발화 시간 비교

	고급 영어 그룹(Y)			초급 영어 그룹(O)		
	피험자 1	피험자 2	피험자 3	피험자 4	피험자 5	피험자 6
첫 번째 녹음	3분 51초	7분 18초	6분 27초	9분	9분 30초	11분 27초
두 번째 녹음	3분 38초	5분 22초	6분 10초	8분 22초	8분 35초	11분 12초

표 5. 총 발화 시간 비교

고급 영어 그룹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영어 단어 발화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장 읽는 데에 막힘없이 녹음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초급 영어 그룹의 경우에는 단어 발음 과정이나 발화 방법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망설이는 과정이나 단어 하나를 길게 발화하는 경향을 보여 상위 그룹에 비해서는 녹음 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음성언어에서는 자연스러운 발화를 위해 강세, 리듬, 억양을 비롯하여 시간적 요소인 발화 속도와 휴지가 적절하게 들어가지야 한다. 따라서 목표 언어를 발화하는 데 있어 발화 속도와 휴지는 원활한 의사소



통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이지예, 2016). 또한 이석형(2011)은 휴지의 빈도수로 유창성 등급을 예측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읽기 발화에 나타나는 시간적 지표로 발화에 대한 유창성 등급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언어의 유창성(Fluency)이란 여러 가지 면에서 정의될 수 있지만 주로 숙련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발화의 길이나, 발화 도중에 말이나 행동의 멈춤 정도 등등에서 판단할 수 있다(Tracey M. Derwing, 2005). 즉, 고급 영어 그룹(Y)은 초급 영어(O) 그룹보다 발화 속도와 소요시간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고급 영어 그룹의 경우에는 영어 발화에 어려움이 없으며, 초급 영어 그룹보다는 영어에 능숙한 그룹이라 할 수 있다.

## 4.2 그룹별 비교 분석

### 4.2.1 그룹별 청취 결과

독립변수 : Group (X-squared = 92.853, df = 1, p-value < 2.2e-16)		
	Incorrect	Correct
초급 영어(O)	109	125
고급 영어(Y)	16	219

표 6. 그룹별 청취 결과

[표 6]은 초급 영어 그룹(O)과 고급 영어(Y) 그룹에서 직접 듣고 판별하였을 때의 결과를 나타냈다. 취학 후 그룹은 단어의 총수 234개 중에서 125개를 제대로 발음하였으며, 고급 영어 그룹의 경우 단어의 총수 235개 중에서 219개를 제대로 발음하여, 두 그룹 간에 제대로 발음이 되는 비율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P < 2.2e-16$  로 유의미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이 수치를 도식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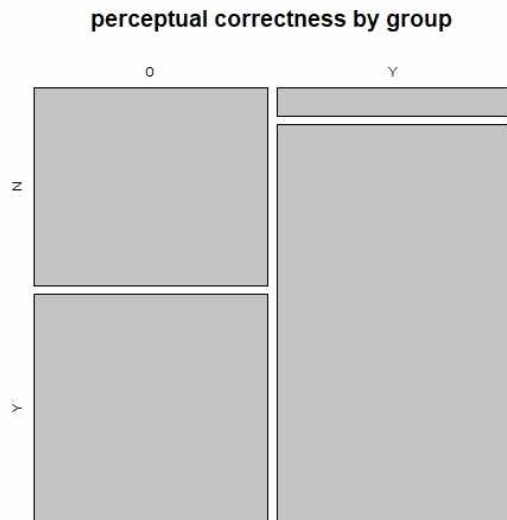


그림 3. 그룹별 청취 결과

### 4.2.2 그룹별 음향 분석 결과

독립변수 : Group (X-squared = 21.318, df = 1, p-value = 3.891e-06)		
	Incorrect	Correct
초급 영어(O)	76	158
고급 영어(Y)	33	202

표 7. 그룹별 음향 분석 결과

[표 7] 는 초급 영어 그룹(O)과 고급 영어 그룹(Y)에서 Praat을 이용하여 음향학적 분석을 통해 판별한 결과를 나타냈다. 직접 듣고 판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두 그룹 모두 제대로 발음한 단어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음향학적 분석 시 초급 영어 그룹에서 직접 듣고 분석하였을 때 보다 제대로 발음한 단어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고급 영어 그룹과 비교 시 제대로 발음한 비율은 낮았으며,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p값은 3.891e-06로 유의미한 결과로 보인다. 수치화한 것을 그림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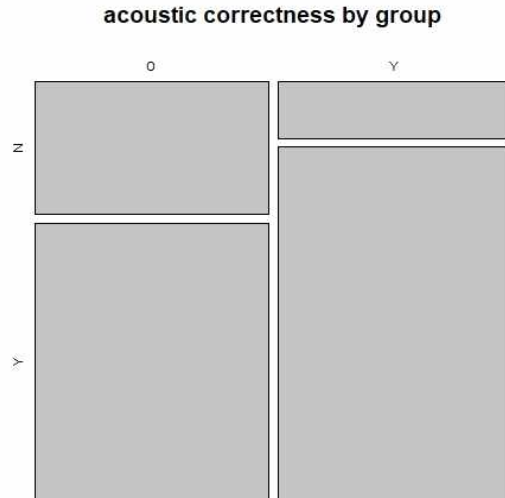


그림 4. 그룹별 음향 분석 결과

### 4.3 자음에 따른 청취 결과

#### 4.3.1 고급 영어 그룹의 자음에 따른 청취 결과

독립변수 : Target (X-squared = 4.8042, df = 1, p-value = 0.02839)		
	Incorrect	Correct
/b/ 가 들어간 단어	4	124
/v/ 가 들어간 단어	12	95

표 8. 고급 영어 그룹의 자음에 따른 청취 결과

[표 8] 은 고급 영어 그룹에 대하여 /b/ 와 /v/ 단어를 직접 듣고 관별한 결과를 나타낸다. 두 가지 종류의 단어 모두 정확하게 발음한 비율이 높았으며, /b/ 가 들어간 단어를 올바르게 발화한 비율이 /v/ 가 들어간 단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p값은 0.02839로 유의미한 차이( $p < 0.05$ )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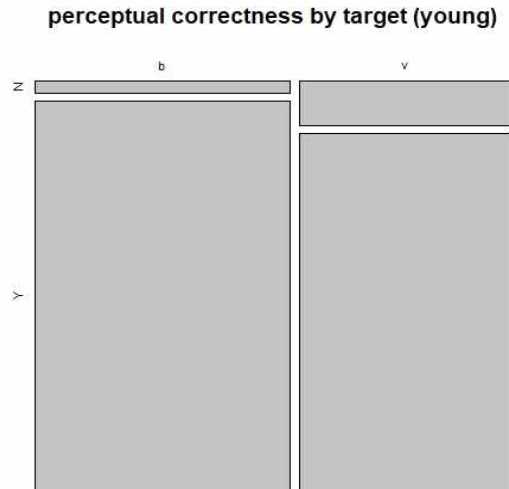


그림 5. 고급 영어 그룹의 자음에 따른 청취 결과

### 4.3.2 고급 영어 그룹의 자음에 따른 음향 분석 결과

독립변수 : Target (X-squared = 0.032001, df = 1, p-value = 0.858)		
	Incorrect	Correct
/b/ 가 들어간 단어	17	111
/v/ 가 들어간 단어	16	91

표 9. 고급 영어 그룹의 자음에 따른 음향 분석 결과

[표 9]는 고급 영어 그룹에 대하여 음향 분석하였을 때의 결과 값을 나타낸다. /b/와 /v/ 가 들어간 단어는 모두 제대로 발음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결과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음향학적 분석에서 /b/ 와 /v/ 가 들어간 단어를 제대로 발음하는 비율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 $p > 0.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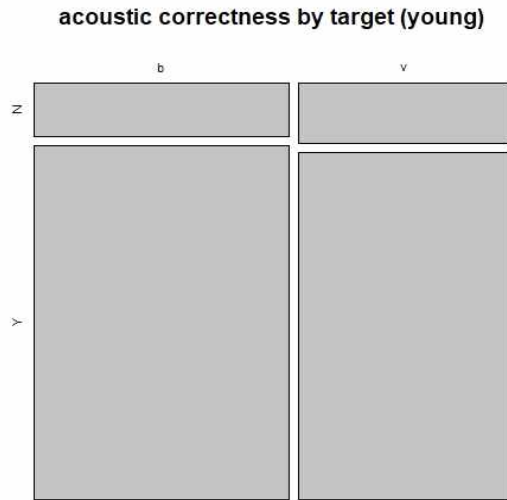


그림 6. 고급 영어 그룹의 자음에 따른 음향 분석 결과

### 4.3.3 초급 영어 그룹의 자음에 따른 청취 결과

독립변수 : Target (X-squared = 141.13, df = 1, p-value < 2.2e-16)		
	Incorrect	Correct
/b/ 가 들어간 단어	14	114
/v/ 가 들어간 단어	95	11

표 10. 초급 영어 그룹의 자음에 따른 청취 결과

[표 10]는 초급 영어 그룹에 대하여 /b/ 와 /v/ 가 들어간 단어를 직접 듣고 판별한 결과를 나타낸다. /b/ 나 /v/ 에 상관없이 단어 모두 제대로 발음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b/ 가 들어간 단어를 맞게 발음한 비율이 /v/ 단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p값은 2.2e-16로 유의미한 차이(p<0.05)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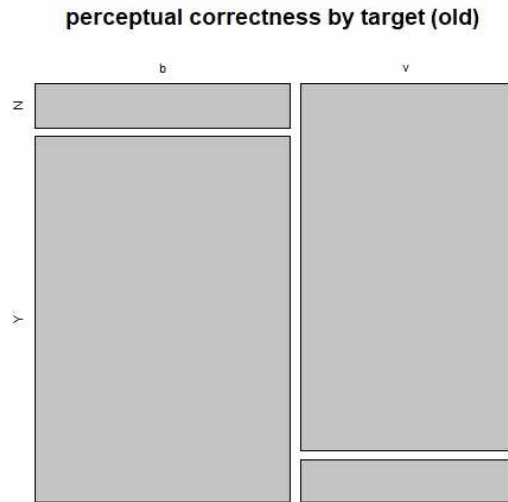


그림 7. 초급 영어 그룹의 자음에 따른 청취 결과

#### 4.3.4 초급 영어 그룹의 자음에 따른 음향 분석

독립변수 : Target (X-squared = 102.33, df = 1, p-value < 2.2e-16)		
	Incorrect	Correct
/b/가 들어간 단어	5	123
/v/가 들어간 단어	71	35

표 11. 초급 영어 그룹의 자음에 따른 음향 분석 결과

[표 11]은 초급 영어 그룹에 대하여 음향 분석하였을 때의 결과 값을 나타낸다. /b/ 와 /v/ 가 포함된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분석한 고급 영어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b/ 가 들어간 단어를 제대로 발음한 비율이 좀 더 높게 나왔다. 하지만 /v/ 발음은 초급 영어 그룹이 고급 영어 그룹에 비해서는 발화 하지 못한 것으로 실험 결과 나타났다. 이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p값은 2.2e-16로 유의미한 차이(p<0.05)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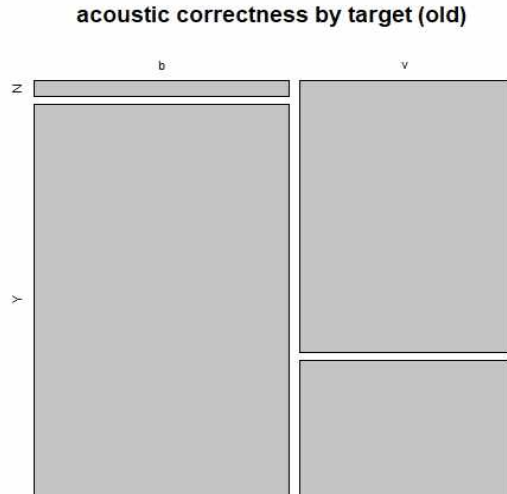


그림 8. 초급 영어 그룹의 자음에 따른 음향 분석 결과

## 4.4 /b/ 와 /v/ 의 단어 내 위치에 따른 비교

### 4.4.1 고급 영어 그룹 /b/ 와 /v/ 의 위치에 따른 청취 결과

독립 변수 : Position (X-squared = 0.14616, df = 2, p-value = 0.9295)		
	correct	Incorrect
I(Initial)	72	6
M(Medial)	87	6
F(Final)	60	4

표 12. 고급 영어 그룹의 /b/와 /v/ 위치에 따른 청취 결과

[표 12]는 문장에서 단어가 위치하는 곳을 분류하여 직접 듣고 분석하였을 때 제대로 발음한 단어의 비율을 나타낸 결과이다. 고급 영어 그룹에서는 단어의 위치가 어두(I), 어중(M) 그리고 어말(F) 일 때 모두 제대로 발음된 단어의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단어의 위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단어 내 위치에 따른 효과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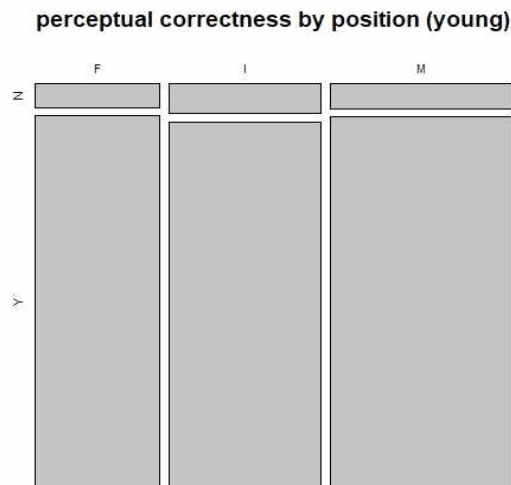


그림 9. 고급 영어 그룹의 /b/와 /v/ 위치에 따른 청취 결과



#### 4.4.2 고급 영어 그룹 /b/와 /v/ 의 위치에 따른 음향 분석 결과

독립 변수 : Position (X-squared = 0.22959, df = 2, p-value = 0.8915)		
	Correct	Incorrect
I(Initial)	68	10
M(Medial)	80	10
F(Final)	54	13

표 13. 고급 영어 그룹의 /b/ 와 /v/ 위치에 따른 음향 분석 결과

[표 13]은 문장에서 단어가 위치하는 곳을 분류하여 음향학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제대로 발음한 단어의 비율을 나타낸 결과이다. 취학 전 그룹에서는 단어의 위치가 어두, 어중 그리고 어말일 때 모두 제대로 발음된 단어의 비율이 높았다.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단어의 위치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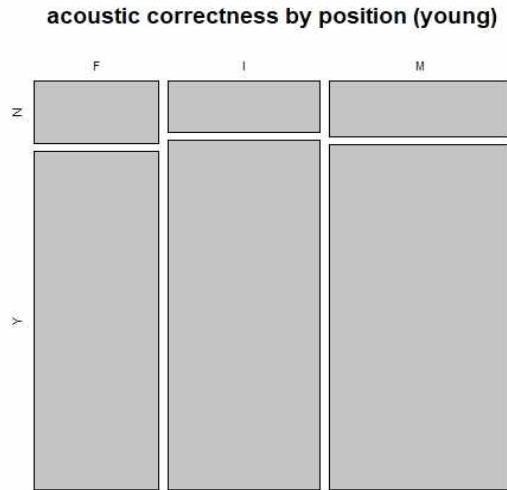


그림 10. 고급 영어 그룹의 /b/와 /v/ 위치에 따른 음향 분석 결과

### 4.4.3 초급 영어그룹 /b/와 /v/ 위치에 따른 청취 결과

독립 변수 : Position (X-squared = 0.05703, df = 2, p-value = 0.9719)		
	Correct	Incorrect
I(Initial)	37	41
M(Medial)	42	50
F(Final)	30	34

표 14. 초급 영어 그룹의 /b/와 /v/ 위치에 따른 청취 결과

[표 14]은 문장에서 단어가 위치하는 곳을 분류하여 직접 분석하였을 때 제대로 발음한 단어의 비율을 나타낸 결과이다. 초급 영어 그룹에서는 단어의 위치가 어두, 어중 그리고 어말 일 때 모두 제대로 발음된 단어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단어의 위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도식화하여 살펴보더라도 위치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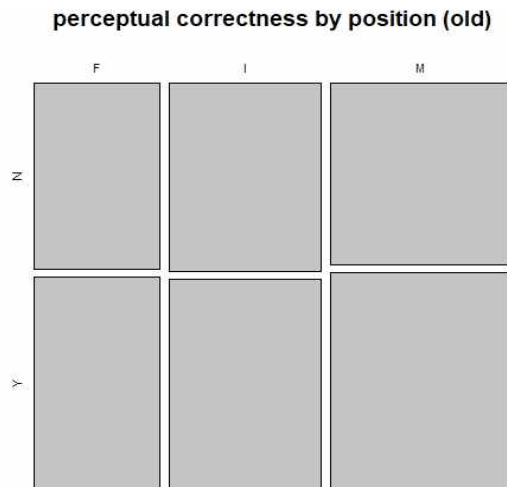


그림 11. 초급 영어 그룹의 /b/와 /v/ 위치에 따른 청취 결과

#### 4.4.4 초급 영어 그룹 /b/ 와 /v/의 위치에 따른 음향 분석 결과

독립 변수 : Position (X-squared = 4.2635, df = 2, p-value = 0.1186)		
	Correct	Incorrect
I(Initial)	31	47
M(Medial)	30	62
F(Final)	15	49

표 15. 초급 영어 그룹의 /b/ 와 /v/의 위치에 따른 음향 분석 결과

[표 15]은 문장에서 단어가 위치하는 곳을 분류하여 음향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제대로 발음한 단어의 비율을 나타낸 결과이다. 취학 후 그룹에서는 단어의 위치가 어두, 어중 그리고 어말일 때 모두 제대로 발음된 단어의 비율은 직접 듣고 분석하였을 때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비록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단어의 위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는 않았으나 그림[12]를 보면 어두에 위치할 때 상대적으로 오류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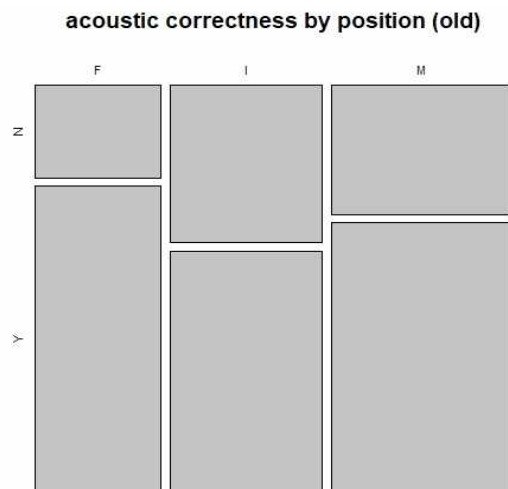


그림 12. 초급 영어 그룹의 /b/와 /v/ 위치에 따른 음향 분석 결과

## 4.5 Logistic regression 을 이용한 통계학적 해석

다음은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해 보았다. 이 데이터에서는 피험자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발음하여 단어를 맞고 틀리게 발음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라 할 수 있다.

	Estimate	Std error	Z value	Pr([z])
Group Y	2.4329	0.9176	2.651	0.00802
Target V	-6.7964	1.5808	-4.299	1.71e-05
Position I	1.7436	1.0829	1.610	0.10738
Position M	2.2689	1.0725	2.116	0.03439
Group Y : Target V	5.2824	1.162	4.530	5.91e-06
Group Y : Position I	- 2.0454	1.2085	-1.693	0.0904
Group Y : Position M	-1.5534	1.2314	-1.261	0.20713
Target V : Position I	0.4520	1.5606	0.290	0.77207
Target V : Position M	-0.6844	1.5916	-0.430	0.66719

표 16. Logistic regression 을 이용한 통계적 해석

[표 16] 에서는 Estimate값이 큰 양수가 나올수록 주어진 단어에 대해 피험자들이 발음을 정확하게 발음한 것이며, 큰 음수 값이 나올수록 발음을 부정확하게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표의 첫 번째 줄의 데이터를 해석해 보면, 초급 영어 그룹(O)에 대하여 고급 영어 그룹(Y)의 Estimate(근사치) 값이 2.4329가 나온 것으로 보아 고급 영어 그룹(Y)에서 두 자음이 정확하게 발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Pr([z])값이 0.0080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p < 0.05$ )

차이를 보였다. 이 연구결과 영어에 일찍 노출되었으며, 영어 교육을 더 많이 받은 고급 영어 그룹(Y)은 /b/와 /v/ 발음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 결과는 결정적 시기 가설에 따른 언어 노출 효과 및 목표 언어에 대한 경험들이 발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줄은 /b/ 발음에 대하여 /v/ 발음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얼마나 /v/ 발음을 정확하게 발음하는가에 관한 해석이다. 이 데이터에서는 상수 값이 -6.794인 큰 음수 값이 나왔다. 따라서 /b/ 발음보다는 /v/ 발음을 더 부정확하게 발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라 할 수 있다. 또한 p값도 0.05 이하이므로 유의미한 차이로 해석될 수 있겠다. 이는 한국인 성인이 한국어에 없는 마찰음 /v/ 발음을 /b/ 발음에 비해 부정확하게 발음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 네 번째 데이터는 /b/ 와 /v/ 가 단어 내 위치에 따른 차이를 보여준다. 기준은 /b/와 /v/ 가 단어의 마지막에 왔을 때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으며, 위치가 처음에 왔을 때에는 Pr값이 0.10736으로 /b/ 와 /v/ 가 처음에 있거나 끝에 위치하였을 때 피험자들에게는 영향을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지만, /b/와 /v/가 단어의 어두에 위치하였을 때와 중간에 위치하였을 때의 Estimate 값을 각각 비교해보면 1.7436과 2.2689로 /b/ 와 /v/ 가 어두에 위치한 경우가 단어의 중간에 위치하였을 때 비하여 더 많이 틀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데이터는 Pr값이 0.0349로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한 차이( $p < 0.05$ )라 해석된다.

다섯 번째 데이터는 초급 영어 그룹(O)이 /b/ 발음에 비하여 /v/ 발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발화하였는가를 고급 영어 그룹(Y)과 비교한 결과이다. 앞에서 확인한 결과와 같이 초급 영어 그룹은 /b/ 에 비하여 /v/ 발음의 오류가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고급 영어 그룹(Y)은 /b/ 나 /v/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초급 영어 그룹의 화자들이 /v/ 의 발음을 매우 어려워하였음을 보여준다.

박승숙(2012)에 따르면 성인의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영어 말하기에 관한 자신감이 높다고 하였다. 고급 영어 그룹(Y)의 경우 영어 시작이 빠를 뿐만 아니

라 영어권 나라에서 거주 경험이 있어, 발음을 더 정확하게 구별하여 발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데이터의 경우 고급 영어 그룹(Y)에게 /b/ 나 /v/ 의 단어 안에서 /b/와 /v/ 가 끝에 위치하였을 때에 대하여 자음이 처음과 중간을 비교하고자 한 결과 값이며 p값 0.05 이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고급 영어 그룹의 경우 /b/나 /v/의 단어 내 위치가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이는 고급 영어 그룹의 경우에는 단어의 조음 방법과 단어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이미 단어 발음에 익숙한 상태라고 보여진다. 또한 카이 스퀘어에서도 나타난 데이터를 한 번 더 검정한 것이다.

## 5. 결 론

본 연구는 영어 수준별에 따른 성인의 /b/ 와 /v/ 발음 오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실험 대상자를 취학 전에 영어를 접한 그룹과 학교 교과과정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 영어를 접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이정환(2006)은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오류를 범하기 쉬운 자음 대립쌍을 발화 실험과 듣기 실험을 통해 영어 발화 능력을 조사해 보았는데, 그 결과 피험자들은 주로 L1의 습관으로 인하여 발화의 오류를 발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L2의 교육에 있어 모국어의 발음 간섭이 적은 시기에 발음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목표 언어에 대한 정확한 발화와 듣기 능력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L2를 늦게 시작할수록 모국어로의 발음 고착화로 인하여 영어의 발화에 오류가 많다고 밝혔다.

본 실험 결과에서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마찰음 /v/ 의 음소들은 한국인 학습자들에게는 구분하여 발음하기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초급 영어 그룹의 피험자들에게 /v/ 발음이 음향학적으로 분석하였을 때나, 청취하였을 때 어려움을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에 비해 /b/ 발음은 /v/ 발음 보다는 오류 비율이 낮은 것으로 결과가 분석되었다. 이는 /b/ 는 우리나라의 조음 방법과 같은 ‘ㅂ’ 발음으로 두 그룹 모두에게 발화의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Oyama(1976)는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나이가 어릴수록 발음이 원어민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보고 하였다. 또한 영어를 학습한 시기가 11살 정도인 경우 이탈리아의 억양이 거의 없으며 11살 이후의 어린이에게는 이탈리아어의 억양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언어 노출 시기에 따른 영어 수준이 발음의 정확성을 결정한다는 근거가 된다. 즉, 본 연구에서 고급 영어를 구사하는 그룹의 경우 3명 모두 유치원에서부터 영어 노출이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꾸준히 영어를 접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마찰음 발음에 대한 어려움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선 마찰음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폐쇄음인 /b/ 에 인지율 보다는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마찰음 /v/ 가 인지율이 낮다는 주장 또한 지지한다. (양병곤 2005)

본 실험에 참여한 참여자들 가운데 영어를 늦게 시작 한 그룹들은 영어를 발화하는데 자신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화 방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영어 노출이 이른 그룹들은 이미 많은 영어 단어의 조음 방법 체득과 다양한 방법을 통한 영어 노출을 통해 영어 발음에 익숙한 것 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문장을 모두 발화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영어 노출이 빠른 그룹의 경우 3~5분 정도였지만 영어 노출이 늦은 그룹은 10~12분 내로 더 오래 걸렸다. Ahn(2001) 에 따르면 언어 노출이 어린 나이일수록 언어 학습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며 CPH(Critical Period Hypothesis)는 언어 습득에 있어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를 이번 연구가 뒷받침해 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단어 내 /b/ 와 /v/ 에 대한 발음 비교에 관한 실험에서는 취학 전 노출 그룹은 /b/ 나 /v/ 가 단어 내 위치에 상관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나, 취학 후 그룹의 경우 /b/ 와 /v/ 가 단어의 어두(語頭)에 있을 때 오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는 한국 영어학습자들은 어두에 오는 유성 폐쇄음 /b/, /d/, /g/ 를 유성음으로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며, (한종임,1999). /b/ 가 단어 시작 부분에 오게 되면 영어의 /b/ 를 유성음으로 발음하지 못하고 무성음 /p/에 가까운 소리로 발음하게 된다. 이와 같은 한국 영어 학습자의 유성 폐쇄음에 나타나는 발음 오류는 모국어의 부정전이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v/ 의 경우에 어두, 어중 그리고 어말 중에서 어두에 위치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오류가 많았다. 이는 /v/ 가 마찰음의 유성성이 실현되는 정도가 어휘 내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임영신, 2019). 모국어인 한국어에서 양순 파열음 /ㅂ, ㅃ, ㅍ/의 경우 모음 사이 즉 어중에서 수의적으로 마찰음화 되어 발음되는 경향성이 있는데, 따라서 마찰음인 /v/가 어중에 위치하



는 경우 어두나 어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발음의 오류 비율이 낮은 환경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와 더불어 영어 발음을 학습하는 데 있어 학습자의 개인적인 차이가 습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번 결과로도 보아 영어 노출이 빠를수록 성공적인 발음 학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으나 각 6명 피험자의 언어적 영향력을 다룬 여러 가지 연구 조사의 결과를 해석해 봐야 뚜렷하게 결과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영어 노출 시기 하나의 요인으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이 역시 영어의 정확성과 유창성에 있어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고 다른 변수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 일 것이다.

제2언어 습득의 경우에는 학습자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성별, 연령, 지역에 따라 성공 여부가 큰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번 실험에 참가한 성인 그룹이 한국에 있는 모든 성인의 대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실험을 통한 결과는 소수의 인원과 한국의 전라남도 출신의 여성 성인으로만 국한되어 실험되었으므로 많은 대상자를 통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고영진 『영어 발음 이론과 실제』 서울 : 한국 문화사, 2004
- 김신근 외 3 『영어학 개론』 경상남도 : 창원대학교, 1997
- 김기섭, 임운 『음향 분석과 영어 발음 교육』 서울 : 한국 문화사
- 박경자 『영어 습득론 - SLA 중심으로』 서울 : 영풍문고
- 박홍자 외 3인 『유아 언어교육』 서울 : 동문사, 2001
- 이완기 『초등 영어 교육론』 서울 : 문진미디어, 2002
- 이호영 『국어 음성학』 서울 : 태학사, 1996
- 홍영예 『영어학의 이해』 서울 : 한국문화사, 2003
- Stern. HH 『언어 교수의 기본 개념』 서울 : 하우, 1983
- Marianne Celce-Murcia, 엮음 : 임병한 『교사를 위한 영어교육의 이론』 서울 : 경문사, 2004
- 강효현. Praat 기반의 영어 자음 발음지도를 통한 고등학생들의 발음 교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국내 석사학위 논문, 2012)
- 고영진. 한국어와 영어 자음에 대한 조음 음성학적 비교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김미량. 한국인 초등학생과 중, 장년층의 영어 모음 발음 비교 분석.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 김미진. 영어 능력 수준에 따른 한국 학생들의 발음 분석.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김제영. 학생의 영어 폐쇄음과 마찰음 인지와 발화. (영미연구 34 : 231-263, 2015)
- 김주영, 신승훈. 영어 음장 인지 및 발화에 나타난 모국어 전이 양상.  
-영어어말 자음을 선행하는 모음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2014)
- 김지은. 한국인의 영어 폐쇄음 발화의 정확성과 발음 숙련도와의 관계에 관한

- 연구. (한국음성학회, 2012)
- 문은주. *Early English Education in Korea - With Reference to CPH and Bilingual Education*. (영어교과교육 1.2 : 75-98, 2002)
- 박승숙. L2 Pronunciation Acquisition by Korean Learners of English.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박창익. 유아 영어교육의 노출 효과 검증. (안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 박희정. 한국인이 발음한 영어 마찰음의 음향 음성학적 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 양병근. 대학생들의 영어자음 인지 연구. (음성과학 12.3 : 139-151, 2005)
- 이상은. 영어 습득 시기가 영어 모음 발음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경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 이석형.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영어 발화 유창성 등급과 발화에 내재된 시간적 변수간의 관계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 이선미, 김신혜. 한국 대학생 영어 학습자들의 동기 및 탈 동기 요인. (언어과학연구 0.68 : 287-312, 2014)
- 이지예. 발화 속도와 휴지가 읽기 발화의 발음 유창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6)
- 이정환. 영어자음 발음 교육의 효과적인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연구. (동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 임영신. L2 습득 모델의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 초등영어학습자의 영어 마찰음 습득에 관한 실험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 초미희. Confusion in the Perception of English Labial Consonants by Korean Learners.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1 : 455-464, 2009)
- 최아름. 음향 분석을 통한 고등학교 영어 학습자 마찰음 발음의 오류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 최정민. 영어 마찰음의 음향학적 분석과 발음 지도에 대한 적용

-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 한종임. 한국 영어학습자들의 영어발음 오류 분석을 통한 발음지도 방안. (교과교육학연구 3.2 : 27-46, 1999)
- Asher, J. *Learning another language through actions. The complete teacher's guidebook.* Los Gatos, CA, 1977
- Asher, J and Garcia, R. *The optimal age to learn a foreign language.* The Modern Language Journal, 53(5), 334-341, 1969
- Avery, P, Ehrlich, P. *Teaching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Ahn, S.W. *Is the critical hypothesis relevant in the EFL situation?.*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 1 586-608, 2001
- Brown, H. Douglas.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Regents. Second Edition, 1994
- Chomsky, N.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I.T. Press, 1965
- Ellis, Rod. *Understand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 Fries, CC, Charles, C.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7
- Guiora, AZ, Benjamin B.H, Robert C. L. Brannon, Cecelia Y. Dull, and Thomas Scovel. *The effects of experimentally induced changes in ego states on pronunciation ability in a second language.* Comprehensive Psychiatry 13, 1972
- Krashen, Stephan D. *The Natural Approach: Language Acquisition in the Classroom.* Oxford : Pergamon Press, 1983
- Kreidler Charles W.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A course Book in Phonology. Oxford : BasilBlackwell, 1989

Smith, N and Wilson, D. *The result of Chomsky's revolution.*

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Press, 1981

Oyama, S. *A sensitive period for the acquisition on a nonnative phonological system.*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volume 5, pages261-283, 1976

Pennington M. C. and Richard J. C. *Pronunciation revisited.* TESOL Quarterly, 20, 2 pp 207-225, 1986

Tracey M. Derwing. *Second Language Accent and Pronunciation Teaching : A Research-Based Approach,* 2005

##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주연입니다.

이번에 “영어 학습 노출 시기에 따른 발음 비교”의 주제로 논문 준비에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명 : \_\_\_\_\_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

(2) 여

2.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

3. 귀하의 출신 지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

3. 귀하의 영어 학습 시작 시기는 언제입니까?

(1) 취학 전 유아기

(2) 초등학교 1학년~2학년

(3) 초등학교 3학년 이후

(4) 중학교 이후

4. 귀하는 하루에 영어를 얼마나 접하고 계십니까?

(1) 전혀 없다

(2) 하루에 2시간 미만

(3) 하루에 2~4시간

(4) 하루에 4~6시간

(5) 하루에 6시간 이상

5. 귀하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십니까?

- (1) 학원
- (2) 독학
- (3) 그룹 스터디
- (4) 기타\_\_\_\_\_

6. 귀하는 영어권 국가에 체류 하신적이 있습니까?

- (1) 없다
- (2) 있다 (있다면 국가\_\_\_\_\_ 체류기간 : \_\_\_\_\_)

5. 공인 영어 보신 경험이 있다면 점수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 (1) 있다 ( 시험 종류 : \_\_\_\_\_ 점수 : \_\_\_\_\_ )

2) 없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다음 밑줄 친 단어를 주의하여 읽어보세요.

- The boat sank beneath the waves.
- We should obey the traffic regulation
- I would like to invite you to our offices.
- He was very successful in his middle fortie
- My neighbor and I are going for coffee.
- A van was parked at the side of the road
- I couldn't catch a cab for five minutes
- Should I call you when I get to the office lobby?
- The hotel looks out over the harbour.
- He cut at the tree with the bat.
- The vase lay in pieces on the floor
- His voice had an almost amazing effect
- Each language has a different vowel system.
- They found her lying in the tub.
- I'd love to come, only I have to work
- We need to have the car serviced.
- Only people over 18 are eligible to vote
- This ball is made of rubber
- I draped a cover over the old sofa.
- The car was already on the move.
- I am about to leave in 20 minute
- BTS new album hit the world.
- The body was cold to the touch.
- I saw the crying face of the bride under the veil.
- Shake the bottle well before use.
- The dog was chewing on a bone.
- She listens but she never joins in.
- My private life is none of your business
- The river banks are a haven for wildlife
- Took my dog in for a checkup and the vet found a tumor



- The woman is wearing a flowery robe.
- I need to improve my French
- I'd prefer you not to make a habit of it
- The baby cannot fall out of her crib.
- A new cultural hub has opened in Seoul.
- In the evening we went to see a movie
- I hand out the yellow ribbon in the grocery store
- No student is to leave the room.
- In this picture, the cub was only two weeks old.
- When I looked at the table, I was surprised.
- Low birth is a serious problem in Korea
- What make of car does he drive?
- Elvis became the symbol of rock 'n' roll.
- She buttered four thick slices of bread
- The table folds up when not in use.
- The frog plopped back into the water.
- Rescuers worked in relays to save the trapped
- The village is further up the valley
- He swiped at the ball and missed.
- Spring is the best season to enjoy fresh herbs
- Do you live near here?
- We just read the back of a label on box
- Seven minus three is four
- Everyone has different sleeping habits.
- I don't like to borrow from friends.
- How clever of you to work it out!
- There were twelve of us in all for dinner
- Would you please vacuum the room?
- We believe in the power of prayer
- You might break a rib or two.
- He was wearing a windproof vest

- My hobby is playing a basketball.
- The bank provides safe custody for valuables.
- The roses are past their best now.
- This knob controls the volume.
- It's not always easy to put on a brave front for the family.
- The legs and felt heavy.
- She rode the bus to school every day.
- A grape vine is that grapes grow on
- She felt nervous and insecure.
- Her husband is a doctor.
- I can't remember her phone number
- She saw a glint of silver in the grass
- She is entering the cabin.
- Please rub the car down.
- The veins carry blood to the heart.
- Children do not learn at an even pace.
- Just take hold of the tube and squeeze.
- The bulb should just screw into the socket
- We keep dishes and the cups in the cupboard.